

5/1/22

설교 제목: 세례 요한의 증언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1 장 19-34 절

- (요 1:1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 (요 1:20)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절관주** 눅 3:15, 요 3:28
- (요 1:21)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절관주** 말 4:5, 마 11:14, 신 18:18
- (요 1:22)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 (요 1:23)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사 40:3
- (요 1:24)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 (요 1:25)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절관주** 마 21:23
- (요 1:26)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 (요 1:27)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 (요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 (요 1:30)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 (요 1:31)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 (요 1:32)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절관주** 마 3:16, 막 1:10

(요 1:33)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절판주 마 3:11, 막 1:8, 눅 3:16

(요 1:34)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 장 1-18 절 서론에서 말씀(로고스)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세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먼저 자신에 대해 합니다.

(요 1:1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 1:20)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유대 지도자들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냅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리자 위협을 느낀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붙잡아 감옥에 넣을 구실을 찾는 것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드러내어 말합니다.

'드러내어 말하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고백하다'라는 뜻으로 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세례 요한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진술이 법적 심문의 일부라는 점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야의 헬라어입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강력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추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네가 누구냐?”는 질문에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표현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다른 누군가 그리스도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고 다시 묻습니다.

(요 1:21)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선지자 말라기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라고 한 예언을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혹시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인지를 물어 본 것입니다.

(말 4:5)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 4:6)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의 답변과 그의 행동을 보고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을 상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어떤 신비로운 방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자신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아니면 겸손하여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도 심지어 예수님도 그가 바로 엘리야라는 사실을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눅 1:17)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마 11:13)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마 11:14)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마 17:1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세레 요한이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부인하자 또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신 18: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앞서 나타날 선지자로 역대 선지자 중
가장 위대했던 모세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레 요한은 자신은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거듭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질문에 세레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밝힘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요 1:22)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랴
하느냐

(요 1:23)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레 요한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사 40:3)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천사가 할 역할을 말한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
밭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세레 요한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또 묻습니다.

(요 1:25)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베푸는 세례를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세례는 이방인 개종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물로 씻길 필요가 없었으며 그런 이유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방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며 이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세례를 받아 정결해져야 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 사역을 예수님과 연관하여 설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시켜 줍니다.

(요 1:26)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요 1:27)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 1:28)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 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운을 띠며 자신은 그분의 신발 끈을 푸는 종의 일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요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30)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자 세례 요한은 '보라' 라는 말로 주위를 환기시키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고 가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제거하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희생 제물 어린 양으로 이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지 못하게 하는 '죄'라는 장애를 제거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증언합니다.

(요 1:31)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 1:32)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 1:33)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요 1:34)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았는데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자세히 묘사된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 3:13)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1)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마 3:14)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마 3:1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 3: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 3:17)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이 예수님께 강림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증거인 동시에 약속된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스라엘에 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투옥되어 목 베임을 당합니다.

요단강 주변에 머무르시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갈릴리로 거처를 옮기셨고 거기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Repent)!'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뒤에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길을 닦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었기에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맡겨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Repent)!'고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사람들이 뭐라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굳게 잡고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기는 자 되십시오!

이기는 자만이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